

김민환의 세상읽기



쌍방향시대의 지방신문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광주로 갔다.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에 그 유명한 썬파일을 쓰고 계시던 그 신문사 김재희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나이는 아버지보다 몇 살 아래지만 향렬로는 아버지의 손자뻘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분이 아버지한테 물었다. '자네가 공부 잘한다는 바로 그분요이?' 분명히 내 조카뻘이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나를 가리켜 이놈 저놈 하는 게 조금 걸렸다. 아버지께서는 나더러 저만큼 가 있으라고 했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는 고스란히 다 들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애가 광주에서 자라게 했으면 하는데 저놈한테 소사라도 맡겨보게." 김재희 축장의 답은 간명했다. "차라리 애를 굶겨 죽이시오. 장남한테 소사 짚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요?" 아버지는 나를 사동으로 밀어 넣어 야간학교라도 다니게 할 요양이었지만, 축장은 사내아이를 사동으로 길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퇴짜를 놓

았다. 그 뒤 나는 고향에서 매일 삼십 리를 걸어 중학교에 다녔다. 그것도 자못재를 넘는 산길이어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여름철이면 발이 퉁퉁 부어 운동화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다. 학교는 이것으로 마감한다. 중학교만 마치면 나는 결코 학교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장흥향교의 전교를 맡고 계시던 고숙(姑叔)이 운영하는 서당으로 가 학문을 배웠다. 그러던 나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나더러 사범학교 시험을 보라는 것이었다. 원서 마감 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그 시절에 사범학교 입시에 불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다. 특히 걸어다니는 데 송신이 나서 진학을 포기하고 한문 공부를 하고 있던 나에게 그 시험을 보라는 건, 가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나에게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광주 친척집으로 가서 입시에 응했다. 옆집에 살던 학생 하나가 문제집을 건네주었다. 시험은 사지

독자가 미디어 사용자 되는 '미주리안'의 기적에 답 있다

선택의 객관식이었다. 나는 그런 객관식 답안지를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어느 과목인가 답을 다 표시했는데 한 칸이 남았다. 한 문제를 빼고 답을 표시한 것이었다. 어느 문제를 빼뜨렸는지 찾는 동안에 종이 울렸다. 나는 보기 좋게 낙방했고 나에게 문제집을 빌려준 학생은 수석 합격했다. 친척 아주머니는 몹시 속이 상했는지 옆집 아들놈은 일등으로 불했는데 너는 꼴찌 합격도 못했으냐고 다그쳤다. 그 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나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 언론학을 공부했고, 1981년 이후에는 광주로 내려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와 교수가 되었다. 부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전남일보'를 찾

았다. 김재희 축장이 이끌어주셨더라면 인연을 맺었을 수도 있는 그 신문에서 나는 뜻밖에도 수년 전에 나에게 문제집을 빌려준 학생을 만났다. 조동수였다. 김재희와 조동수. '전남일보'의 명 주필로 지역 여론을 이끌고 대변하던 올곧은 언론인들이었다. 지금은 '광주일보'로 이름을 바꾼 바로 그 '전남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이했다. 참으로 경하할 일이지만 마음 한 자락에 깔린 아픔을 숨길 수는 없다. 지방신문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 공짜로 정보를 퍼트리는 바람에 신문은 경영기반 자체가 허물어졌다. 거기다가 민주화 후과(後果)로 신문이 난립해 좁은 시장에서 너 죽고 나도 죽는 죽음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신문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주리안(Missourian)'이라는 신문이 보여준 기적에서 그 길을 엿볼 수 있다. 인터넷시대에 독자들이 인터넷신문에서 정보를 공짜로 얻으면서 기사나 논설에 열심히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그 신문은 인터넷판을 활짝 열어 독자의 참여를 부추겼다. 인터넷 판에 랜잡은 의견이 올라오면 종이신문에서 소개하고

때로는 과격적으로 대서특필했다. 댓글이나 의견을 올린 익명의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명을 밝히고 종이신문에 소개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보안취재를 통해 종이신문에서 크게 다루었다. 독자의 참여욕구를 수용하는 이런 간단한 전략만으로 '미주리안'은 2만 부 이상의 유료독자를 창출했다. 신문이 갑이 되고 독자는 을이 되는 시대가 아닌, 서로 갑이 되고 을이 되는 쌍방향시대에는 종이신문도 쌍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을 '미주리안'이 제시한 셈이다. '미주리안'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다. 쌍방향 시대에 쌍방향으로 가기 쉬운 지방지에서 천만다행이라고. 이 순간에도 많은 기자들이 '광주일보'에서 제2, 제3의 김재희 조동수가 되어 지방의 언론문화를 일구고 있다. 독자가 수용자도 소비자도 아닌, 미디어 사용자로 변한 새로운 환경에서 제2, 제3의 김재희 조동수들이 독자의 의견을 듣고 독자를 모시는 썬파일을 분다면 독자들 역시 썬파일로 호응할 것이다. '미주리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 교수·신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 사랑

럽 말도 안 들어주는 신이 신이냐"며 응대했다. 서로 이렇게 따지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씨익거리다가 대판 싸웠다. 시간이 더 지나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바람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공기를 볼 수 없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신은 존재한다. 와 닿을 듯 하지만 초동학생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아직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은 동물 중 가장 지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인간이 어느 동물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부모의 감안이 있어서라고 한다. 울타리 안에 고정된 시험관 속 땅콩을 빼먹기 위해서 집안치는 일에 물을 담아 시험관에 부어 땅콩이 물 위로 올라오면 빼먹는다. 그러나 이 집안치 엄마는 이런 기록한 행동에도, 또한 벌들 썩기를 잘했다는 때도 자기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첫걸음을 떼고, 첫발을 하고, 처음으로 뒤집을 때 박수를 듣고, 칭찬을 해주는 엄마가 있다. 이러한 엄마의 칭찬과 감탄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 에릭슨

(Erikson)이라는 학자는 이런 칭찬으로 아이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이며, 세상 또한 따뜻하고 믿음직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이 시기에 형성된 신뢰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신뢰감의 핵심은 부모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독특하여 그냥 날기만 하는 동물들의 그런 사랑과 달리 믿음을 갖게 하고 칭찬을 준다. 칭찬이란 것이 무엇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성장하게 하고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는 힘일까? 보아야만 믿는 과학적 사고는 인간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입양이나 시설의 아이들이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발달이 더딘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의 발달에는 유전적 요인만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전한 유아발달을 보장해준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이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다. 굳이 신의 존재를 말하는데 까지 가고 싶지 않다. 유럽의 많은 아이들은 신의 존재를 굳이 대화거리로 꺼내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자라며 큰 존재에서 신의 존재를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른 그들의 이름 없는 전사자의 묘의 "신만이 아는 이"라는 명패는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그들에게 놀라운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위로와 안부를 취할 곳이 어디인지 인식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 치마 뒤에 숨어 위로와 안부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인이 되어 위로와 안부를 취하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신의 존재는 멀리에 있지 않은 듯하다. 나를 칭찬하고 나의 이야기에 끄덕이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나의 고통을 기꺼이 나눠주려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 갖는 강한 힘인 듯하다.

독자 투고

소비자 우롱하는 백화점-아울렛 아웃도어 가격

요즘에 가장 관심 가는 의류는 뭐니뭐니해도 등산복일 듯하다. 그리고 요즘 등산복은 물론 안들이 오면서 몸속의 땀은 배출해주는 특수소재에 내구성도 짙고 디자인까지 예뻐서 아주 인기가 높다. 예전에는 등산복이라고 하면 정말 등산이나 할 때 입는 옷이었었는데 요즘 등산복은 그 디자인이 워낙 우수해서 외출복과 평상복으로도 입을 만큼 인기가 높다. 등산복에는 요즘 고가의 여러 브랜드들이 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 솔직히 이런 옷을 살 때 항상 속는 기본이고, 번번이 당하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양복도 저가 할인매장에 가면 10만 원대도 준비하고, 순모 정장으로 20만 원대도 많다. 30만 원대 저가제품은 사실 저가품 중에서도 고가품에 속할 정도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보니 이 등산복은 아무리 기능성이라 해도 오리털 점퍼 하나에 40~50만원을 훌쩍 넘었다. 그것보다 더 웃기는 것은 백화점이나 점품을 파는데 가면 이 돈 다 주고 사야 하지만 바로 걸 건너 아웃렛 매장에 가면 20~30만 원대에 사고 판

다.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닌 황당할 일인가. 물론 업체는 철 지난 재고상품이라고 말 하지만 백화점은 그야말로 전사용이고, 아예 아울렛 매장에서 팔 것까지 계산해서 턱 없이 비싼 값에 파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도로변에 대형 아웃도어 아울렛 매장이 있는 곳이 많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상설 매장이라는 이름으로 기분이 50%씩 다운해서 판다. 그러나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정시에 파는 점품을 살 때는 이게 제대로 구매 하는 것인지, 속고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인터넷 광고 헤드라인 표제로도 "아웃도어 제값 다 주고 산 당신, 속은 겁나다"라는 표제가 카피를 보고 한참 웃었다. 백화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가로 팔다가 이월상품을 30~50% 할인판매하고, 상설할인매장에서 소비자가의 최대 70~80%까지 할인판매를 하는 이런 도깨비 판매방식, 일부러 비싸게 팔고, 할인해서 또 파는 상술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닌가. ▲지연자·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기고

4·19역사 바로 세워 광주 위상을 드높이자



이병열 4·19민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

이후 전국 대도시에서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이 불의에 항거한 최초의 민중항쟁으로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26명의 피와 희생으로 자유당 독재정권 12년의 장기집권의 막을 내리게 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사에 획기적인 민주화 초석을 이룬 민주혁명이었다. 4·19민주혁명의 시원은 자유당독재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제4대 정부통령선거인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부정선거의 양상은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 봉지를 투표함에 넣거나 집단대리투표, 3인 5인조 편성 상호확인투표를 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국민을 흥분, 분노케하였다. 정의가 살아숨쉬는 광주에서 1960년 3월15일 12시45분 광주 민주당원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하여 선거참관을 위하여 머리에 두건을 쓰고 민주주의의 장송 대모를 주도 1000여명의 군중과 합세해 금남로에서 구도청으로 전진 중 격렬한 시위로 무장경찰과 충돌 유혈이 난자하고 수라장이 되었다.(60년 3월 15일 석간, 3월 16일 조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기사내용) 1960년 3월15일 3시40분 마산에서 민주당원이 부정선거배척 데모로 군중과 합세 약 1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하고 7시 30분에는 수천의 군중 데모대와 경찰과 충돌 충격 및 투석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60년 3월 16일 조간, 석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보도기사 내용) 마산데모당시 행방불명이 된 마산상고 김

주열군의 시체가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 있었다. 시체발견은 전 국민의 흥분을 극에 달하게 하였으며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는 고조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시적이 있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1960년 3월 15일, 16일 조간, 석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보도된 기사가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과 같이 광주의 금남로 민주주의 장송데모에 1000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부정선거규탄시위가 전국 최초 3·15부정선거규탄 시위로서 마산보다 3시간 앞서 4·19혁명의 뇌관에 불을 댕겼다는 역사적진실 보도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사(國史)의 기록은 마산 3·15의 거(부정선거규탄시위)가 4·19혁명의 시작이 되었다고 마산만 기록하고 있으며 4·19혁명의 최초 시원지인 광주 3·15의거(부정선거규탄시위) 역사는 국사(國史)의 기록에 없다. 위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신문들의 기사 내용 즉 광주와 마산의 3·15의거 발생 시간차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광주와 마산의 3·15의거가 4·19혁명의 발원"임을 국사에 바르게 표기되어야한다.

역사를 사실대로 진실을 기록하지않으면 정의가 무너져 도덕적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시킨다. 광주4·19추억들은 광주 3·15역사가 국사의 기록에 소외되는데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국난의 고비고비마다 앞장서왔으며 4·19혁명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광주 4·19역사는 망각의 역사로 소외되어 바르게 기록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일지라도 기록되지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진흙 속의 진주와 같다.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에서는 4·19역사를 바로 세우고 광주의 정체성을 드높이기 위해 대국민 1000만인 서명 운동과 4·19혁명의 발원인 광주 3·15의거(부정선거규탄시위), 금남로 민주주의 장송데모재현 행사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4·19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심포지움과 포럼을 수시 개최하고 있다. 광주4·19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위대한 광주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광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이다. 또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광주정신을 드높이는 일이다 이 위대한 대업에 역사학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관계기관의 깊은 관심과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00-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이런 작품에서 물질을 향한 탐욕에 대비해 음울한 여성성과 본능적 모성을 상징하기 위해 느릅나무를 배치했다. 느릅나무는 잎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일명 '짜궁등'으로 불리는데 박람회장에 가면 추곡수신수 기성용이 기증한 느릅나무를 볼 수 있다. 히딩크 감독의 탄생목인 호두나무는 네덜란드정원에 있다. 호두는 우리나라에서 부럼으로 쓰이지만 북유럽에서는 11월1일 만성절에 남녀가 사랑점을 치는 풍습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부럼에 호두를 던져 터지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 하는지 점친다고 한다. 고대 로마인들은 주피터의 열매로 여겨 신성시했다. 이밖에 박람회장은 5000년을 산다는 아프리카산 신비의 바오밥나무와 벼락을 두번이나 맞고도 살아남은 수령 100년의 은행나무가 있다. 사연이 있는 나무를 만나는 기쁨도 순천민정원박람회 관람의 묘미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 화 생 활 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00-66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여 론 매 체 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3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